

숨어살기의 논리

— 삼국유사의 「피은」과 16세기 강호시조 —

신영명*

<국문초록>

이 글은 삼국유사 「피은」편의 연회 이야기와 16세기 강호시조에 있어서 숨어사는 삶의 논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비교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검토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삼국유사 「피은」편의 연회 이야기에는 숨어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변증법적 논리가 나타난다. 문수보살이나 변재천녀로부터 연회가 배운 것은, 세속을 떠나 자연에 숨음으로써 완성하고자 한 보현관행이 오히려 세속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완성된다는 역설적인 사실이다

둘째, 강호시조에는 사대부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출처관이 나타난다. 출은 정치현실로의 나아가기를, 처는 강호자연으로의 물러서기를 각각 가리킨다. 강호시조는 이 출처의 갈등을 자연을 매개로 한 심성수양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가에 따라 그 갈등을 해소하는 정도의 차이는 약간의 편차를 갖는다.

셋째, 숨어살기의 전개에 있어서 연회 이야기는 변증법적 특성을 지니는 반면, 강호시조는 평면 분할적인 성격을 지닌다. 전자가 잘나적인 깨달음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과정상의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

핵심어 : 숨어살기, 나아가기, 물러서기, 강호자연, 정치현실, 심성수양, 변증법적 논리, 보현관행, 자연, 세속

* 상지대

1. 들어가기

숨어사는 삶은 즐거운 일인가, 아니면 괴로운 일인가?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문학 갈래로는 강호시조가 있다. 강호시조는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사대부의 감흥을 노래한 문학이다. 이 감흥은 흔히 진락이라 일컬어지는데, 그것이 인격적 완성을 향한 수양의 과정에서 우러나온 규범적 즐거움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이황이 「도산잡영기」에서 언명한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 일”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한 문학사적 증언이 된다. 이 경우 강호시조는 숨어사는 일을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즐거움에는 조건이 뒤따른다. 이를테면 명분이 있어야만 숨어사는 일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곧 논어 「계씨」편의 은구라는 개념에 나타난 것처럼 그 뜻을 추구해야만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그 뜻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찾아야 하는가? 유교 철학에 따르면, 그 뜻이란 하늘로부터 명령받은 바 삶의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중용에서는 그것을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본성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곧 천명으로서의 본성을 따르는 일을 도라고 한다.

그러면 도는 왜 추구해야 하는가? 숨어사는 삶의 선택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원래 선비는 세상에 나아가 도를 펼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세상에 그 뜻을 펼치지 못할 때, 자연에 은거하면서 홀로 그 도를 지킬 수밖에 없다.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치는 것을 겸선, 홀로 도를 지키는 것을 독선이라 한다. 숨어사는 삶의 괴로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지금이 나아갈 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일은 선비에게 있어 절체절명의 사건이 된다. 예를 들면 “江湖에 노자 하니 聖主를 버리고/ 聖主를 섬기자 하니 所樂에 어기에라”와 같은, 권호문의 〈한거십팔곡〉 제4곡의 고백에서 그 갈등의 모습을 선명하

게 읽을 수 있다.

강호시조의 은거의 삶에 내재한 즐거움과 괴로움의 논리는 대체로 위와 같이 정리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과는 대체로 유교의 관점에서 숨어사는 삶의 의미를 편중 탐색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이 약점을 일정한 정도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삼국유사 「避隱」편에는 모두 10조목의 숨어사는 삶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 대부분은 불교적 주제나 색채를 띠고 있다. 「피은」의 은거관과 강호시조의 그것을 비교하는 작업은 유교적 시각의 편중이라는 연구사적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이 글은 숨어사는 삶에 대한 전면적인 관점에서의 유불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글은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은」에 나타난 은거관을 16세기 영남사림의 강호시조 몇 편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일단을 탐색하는 데 머무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유교와 불교에서 각각 숨어사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삼국유사의 「피은」

삼국유사 「피은」편에는 모두 10조목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중 물계자 이야기를 빼고는 모두 불교적 주제나 색채를 띠고 있다. 다만 신충은 유교에서 불교로 전향해 가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 다음, 「피은」편에 나타난 불교적 은거의 논리를 탐색해 보기로 하자. 「피은」편에서의 숨어사는 삶은 대체로 종교적 구도에서 그 선택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해현이나 낭지가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포천산 다섯 비구나 염불스님이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들이 구도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영재의 경우처럼 물질에 구애를 받지 않는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물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세속을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모습은 강호 시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다. 문제는 숨어사는 삶을 긍정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갈등을 느끼는 행위가 어떤 논리적 과정을 담고 있는가에 있다. 유교적 은거관에 따르면,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없으면 물러난다. 이 과정에서 도의 유무를 판단하는 일은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숨어사는 삶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 오류나 사회적 부적응을 강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은거를 선택한 이는 자신의 인격적 완성을 적극적으로 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피은」편에는, 물론 자료의 제한 때문이겠지만, 이와 같은 숨어사는 삶의 선택에 대한 논리적 연술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은」의 다른 조목과는 달리 연회 이야기는 숨어사는 삶에 대한 불교의 독특한 변증법적 논리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 그 기사를 소개해 보기로 하자.

고승 연회는 일찍이 영축산에 숨어살면서 언제나 법화경을 읽고 보현관행을 닦았는데, 뜰의 연못에는 항상 연꽃 몇 떨기가 있어 사철 시들지 않았다.

국왕 원성왕이 그 상서로운 이적을 듣고 그를 불러 벼슬을 주어 국사로 삼고자 하였다. 스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만 암자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서쪽 고개 바위 사이를 넘어갈 때, 한 노인이 이제 막 밭을 갈다가 묻기를, “스님은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하였다.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듣자니, 나라에서 잘못 듣고 나를 관작으로 얹어매려고 하므로 피해서 갑니다.”라고 하였다. 노인이 듣고서 말하기를, “여기서도 팔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해서 수고로이 멀리서 팔

려고 합니까? 스님이야말로 이름 팔기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연회는 그가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몇 리를 더 가다가 시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묻기를, “스님은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하였다. 연회는 처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앞에서 사람을 만났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한 노인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심하여 불쾌해서 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노파가 말하기를, “그분은 문수대성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어떡합니까?”라고 하였다.

연회는 그 말을 듣고 놀라고 송구스러워 급히 노인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기를, “성자의 말씀을 감히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냇가의 그 노파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하였다. 노인이 말하기를 “변재친녀입니다.”라 하고, 말을 마치자 그만 숨어버렸다. 이에 암자로 돌아갔더니 조금 뒤에 왕의 사자가 조서를 받들고 와서 그를 불렀다. 연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업임을 깨달았다. 이에 조서에 응하여 대궐로 가니, 국사로 봉함을 받았다.¹⁾

이 기사는 신라 원성왕 때 고승 연회가 국사로 나아가게 된 사연을 담고 있다. 여기서 숨는 것과 드러내는 것, 나아가는 것과 물러서는 것 사이의 절묘한 변증법을 읽을 수 있다. 연회는 원성왕의 부름을 알고 이를 피해 숨고자 한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 연회에게 이름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오히려 이름을 파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은근히 힐난한다. 곧 逃名은 盜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盜名은 또 釣名이라고 한다. 일연보다 한 세대 앞선 인물인 이규보는 <조명풍>이란 시에서 조명이

1) 高僧緣會 嘗隱居靈鷲 每讀連經 修普賢觀行 庭池常有蓮數朶 四時不萎 國王元聖 王 聞其瑞異 欲徵拜爲國師 師聞之 乃棄庵而遁 行跨西嶺崑間 有一老叟今爾耕 問師奚適 曰 吾聞邦家濫聽 摩我以爵 故避之爾 叟聽曰 於此可買 何勞遠售 師之 讀賣名無厭乎 會謂其慢己 不聽 遂行數里許 溪邊遇一媪 問師何往 答如初 媪曰 前遇人乎 曰 有一老叟侮予之甚 媪且來矣 媪曰 文殊大聖也 夫言之不聽何 會聞 卽驚悚 遽還翁所 扣籟陣悔曰 聖者之言 敢不聞命乎 今且還矣 溪邊媪彼何人斯 叟曰 辯才天女也 言訖遂隱 乃還庵中 俄有天使賚詔徵之 會之業已當受 乃應詔赴 闕 封爲國師。(三國遺事, 避隱 第八, 緣會逃名·文殊帖) 위 번역은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편, 『역주 삼국유사』 IV(이희문화사, 2003), 323~325면에서 인용.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은 필자.

란 마치 무염녀가 화장으로 얼굴을 다듬는 것과 같아서 구역질을 면치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²⁾ 또한 시대적으로 한참 뒤이지만, 이이는 「사직제학재소」란 글에서 벼슬로 불러도 겉으로 사양하는 척하나 내심으론 분수에 넘치는 자리를 넘보는 일이라고 도명을 비난한 적이 있다.³⁾

그러나 연희는 이름을 피해 숨는 것을 이름을 파는 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강변한다. 그리고 다시 숨어사는 삶의 길로 나선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파를 만난다. 그녀는 연희에게 문수보살의 정체를 알려준다. 이에 연희는 자신의 불찰을 깨닫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수보살로부터 그 노파가 변재천녀라는 일갈을 듣는다. 이에 연희는 마른하늘의 벼락을 맞은 듯한 통찰을 얻게 된다. 문수보살의 현신인 노인에게 들은 힐난은 가벼운 잼, 변재천녀의 응신인 노파에게 들은 귀뜸은 왼쪽 뺨어치기, 마지막 문수보살에게 들은 일갈은 오른쪽 뺨어치기에 해당한다는 재미있는 해석도 있다.⁴⁾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석가여래를 모시는 협시보살의 하나다. 문수가 부처의 智慧를 상징한다면, 보현은 부처의 行願을 상징한다. 연희는 보현관행, 곧 『觀普賢菩薩行法經』에 의거해 法華三昧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 이름을 피해 숨어살고자 한다. 그러나 범화삼매는 숨어산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화삼매

2) 鈞名異於是 僥倖一時耳 有如無鹽女 塗飾暫容媚 粉落露其眞 見者嘔而避. [이규보, 〈鈞名賦〉, 동국이상국집 권13,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1(경인문화사, 1995), 423면.] 이하 문집총간 인용은 이규보, 「鈞名賦」, 총간 1, 423면과 같은 식으로 표시함.

3) 若其矯情飾行 鈞採虛譽 陽辭微辟 陰覲非望 貌澹而中熱 色厲而內吝者 謂之盜名. (이이, 「辭直提學再疏」, 총간 44, 93면.) 도명과 조명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이민홍, 「사립과문학의 연구」(형설출판사, 1985), 239~244면 참조.

4) 고운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현암사, 2002), 684~685면 참조.

란 대립이나 차별을 넘어설 때 얻을 수 있다. 문수보살과 변재천녀는 양손 뺨어치기 협공을 통해 연희로 하여금 이러한 대립과 차별의 장애를 넘도록 깨우친다. 세속에 물들면 삼매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자연에 숨는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방편일 뿐이다. 방편을 넘어서는 본질을 획득해야 삼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속을 떠나야만 삼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온다. 세속을 떠났다 다시 세속으로 돌아오는 이 행위 속에는 변증법적인 통찰의 과정이 들어있다. 비록 장소는 동일하지만, 사람은 이미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닌 것이다.

세속을 떠나는 일은 이름을 피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이름을 파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세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깨달음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 문수보살이나 변재천녀와 같은 지혜의 화신에게서 연희가 배운 것은 바로 이러한 보살도의 정신인 것이다. 떠남으로써 완성하고자 한 보현관행이 오히려 돌아옴으로써 완성되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연희 이야기의 핵심적 주제다. 법화경의 요체가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이 결국 부처의 마음 하나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점⁵⁾을 고려할 때, 연희의 선택은 곧 숨어살기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깨달음 너머 중생 모두의 자각을 지향하고자 하는 한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피은이란 세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부정의 부정을 통한 긍정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일연이 연희를 기리며 쓴 찬시 또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5) 聲聞은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 緣覺은 홀로 연기의 이치를 주시하여 깨달은 자, 菩薩은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수행자를 각각 가리킨다. 법화경은 이 三乘이 부처의 마음 하나로 귀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會三歸一이라고 한다.

倚市難藏久陸沈	장바닥에서는 어진이가 오래 숨기 어렵고
囊錐既露括難禁	주머니 속의 송곳도 한번 드러나면 감추기 어렵네.
自緣庭下靑蓮誤	뜰아래 푸른 연꽃 때문에 그르친 것이지
不是雲山固未深	구름과 산이 깊지 않아서 아니라네. ⁶⁾

陸沈이란 어진이가 세상에 숨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는 아무나 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세속지향 → 세속지향 부정 → 세속지향 부정의 부정'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낭추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이 아니라, 깊은 통찰의 과정을 거치되 자신에게 주어진 연기의 업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름과 산이 깊어도 뜰아래 핀 연꽃의 업을 연회는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연꽃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것이라는 표현은 곧 반어가 된다. 오히려 그런 위기 때문에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반어에는 연회의 선택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아니라, 세속과 자연, 숨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함께 아울러 긍정하는 해학의 경쾌함이 드러난다.

3. 강호시조의 출처관

강호시조란 무엇인가? 강호에서의 삶을 노래한 사족의 시가문학이다. 여기서 강호란 사족의 활동 공간인 향촌사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족이란 여말선초 그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바탕으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사회세력을 일컫는다. 이들은 중소재지주라는 기반으로 하여 조선왕조를 건국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후발주자인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322면. 번역은 고운기, 앞의 책, 686면 참조.

사림은 그들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중앙정계로의 진출과 향촌사회로의 복귀라는 정치적 행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험을 겪는다. 강호는 기본적으로 향촌사회로의 복귀라는 이러한 정치 행위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다. 사족이나 사림 모두를 범칭하는 개념으로 사대부란 용어를 쓸 수 있다면, 이 사대부가 중앙정계로 나아가는 행위를 出, 향촌사회로 돌아오는 행위를 處라고 한다.

강호는 바로 이 사대부의 처의 공간이다. 사대부는 이 공간에서 중앙정계의 치열한 정치쟁투로부터 얼마간 벗어나 조용히 철학적 성찰의 길을 걷을 기회를 얻는다. 이 길은 곧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 본성을 따르는 일이 된다. 이것을 일러 심성수양이라고 한다. 강호에는 자연이 있다. 강호시조에 있어서 자연은 숨어살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심성수양을 위한 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곧 하늘의 명을 따르는 수양의 과정을 돕는 역할을 자연은 한다. 본성을 닦는 데 있어서 자연을 매개로 하는 일을 助養이라 한다.

그런데 이 심성수양은 중앙정계에 대해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을 천명하거나, 또는 앞으로의 정계 진출을 위한 한 도구적 발판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자연을 매개로 하여 심성수양을 꾀하는 이러한 처의 생활은, 그러므로 세속을 완전히 벗어난 삶은 아니다. 몸은 비록 자연에 있더라도 마음 한쪽은 늘 정치 쪽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를 취한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날 수 있다. 곧 정치에 몸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늘 강호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출과 처의 이러한 갈등, 그리고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강호시조의 핵심 주제가 된다. 이제 이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적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자.

(가) 구버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
 十丈紅塵이 언제나 ㄹ렛는고
 江湖에 月白하거든 더욱 無心하애라

(나) 長安을 도라보니 北闕이 천리로다
 魚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濟世賢이 업스랴⁷⁾

이 작품은 16세기 작가 농암 이현보의 <어부단가> 제2곡과 5곡이다. (가)에서 화자는 앞으로는 천 길의 파란 물 뒤로는 만 겹의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강호의 자연 속에 살고 있다. 이 자연은 열 길 세속의 붉은 먼지를 가린다. 그래서 화자는 하얀 달과 같은 무심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여기서 세속의 붉은 먼지란 정치 쟁투가 벌어지는 공간을 은유한다. 이 선명한 색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선택은 분명히 드러난다. 강호는 수용되고, 홍진은 배제된다. 그 결단의 끝머리에 월백무심의 정신적 고양어 온다. 이러한 정신적 고양은 세속에서 벌어지는 정치 쟁투의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천명이 된다. 이 벗어남은 그러므로 정치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일정한 비판을 담고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현보에게 있어서 그 비판은 기존의 정치현실을 개혁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어부단가>가 벼슬을 그만둔 다음의 작품이라는 것이 그 이유겠지만, 당대의 시국에 대한 이현보의 인식이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는 점이 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나)에서 장안과 북궐 사이의 천리라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자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살아 숨쉬는 정치현실을 끝내 버리지 못한다. 그것이 갈등을 부르는 요인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구할 현자에게 자신의 시름을 미룸으로써 그 갈등을 해소한다.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장안과 북궐의 갈등을 온건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한 전형을 이현보의 <어부단가>는 보여준다.

7) 이현보, <어부단가>, 『이조명현집』 3(대동문화연구원, 1973), 51면.

(다)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리타 엇다흐료
 흐닐며 泉石膏育을 고타 므슴흐료

(라) 靑山는 엇데흐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엇데흐야 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라⁸⁾

이 작품은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 제1곡과 11곡이다. 여기서 ‘이런들’은 강호자연에서의 물러서는 삶이며, ‘더런들’은 정치현실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황에게 있어서 나아가고 물러섬은 어느 한 쪽은 수용하고 다른 한 쪽은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상호배타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선택 가능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황에게 있어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과의 갈등은 이현보에서보다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당대 시국을 바라보는 이황의 신중성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갈등이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니다. 초야의 어리석은 선비라는 양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황 역시 현실의 정치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비판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현보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미룸으로써 해소하고 있지만, 이황은 그 선택이 요구하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을 천명하고자 하는 실천 행위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연을 매개로 한 심성수양이 바로 그것이다. (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늘푸른 산의 항상성과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지속성에 주목하여, 인간 역시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다짐한다. 자연 속에서 심성수양을 실천하며, 또 그것을 통해 물러서기와 나아가기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

8) 이황, <도산십이곡>, 『퇴계전서』속(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71), 4면.

는 것은, 이황이 <도산십이곡>을 통해 만들어낸 강호시조의 한 전형이 된다.

(마) 江湖에 노자 하니 聖主를 브리레고
聖主를 섬기자 하니 取樂에 어긋예라
호은자 岐路에 서서 갈 더 몰라 호노라

(바) 江干에 누어서 江水 보느 뜨든
逝者如斯하니 百歲 1 돌 먼 근이료
十年前 塵世 一念이 어림 녹듯 호다⁹⁾

이 작품은 송암 권호문의 <한거십팔곡> 제4곡과 총결곡이다. 여기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사이는 어느 한 쪽을 수용하면 다른 한 쪽은 배제해야 하는 상호배타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 둘을 배타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현보나 이황의 경우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이현보나 이황과는 다르게 권호문은 평생 출사의 경험이 없는 포의로 산 바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출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 아무래도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번도 출사한 경험이 없는 이에게 있어서, 나갈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의 선택은, 한번 나갔다 돌아온 사람보다 훨씬 더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을 더욱 날카롭게 가할 수 있는 여건도 일정한 정도 조성된다.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의 (나)나 “이런들 엇다하며 더런들 엇다호료”의 (다)와 “호은자 岐路에 서서”의 (마)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점은, 권호문이 새롭게 만들어낸 하나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러나 그 갈등의 강도가 다른 작가에 비해 높을 뿐이지,

9) 권호문, <한거십팔곡>, 총간 41, 290~291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바)에서 보듯이,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사이의 갈등을 푸는 방법은 역시 자연을 매개로 한 심성수양이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또 흘러온다. 사람도 저 강물과 같아서 배움을 한시라도 멈출 수 없다. 여기서 배움이란 물론 심성수양을 통한 인격의 내면적 완성을 뜻한다. 권호문은 바로 이와 같은 학문 연찬에 대한 열정을 통해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 그러나 자신이 한때 가진 바 있는 출사의 꿈을 훌쩍 세상 에 대한 욕망으로 인식한 점은, 세상과의 불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현보나 이황과는 구별되는 지점에 그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한 증거가 된다.¹⁰⁾

4. 피은과 출처

앞에서 삼국유사 「피은」편 연회 이야기에 나타난 이름 피하기의 변증법적 논리와 16세기 영남사림의 강호시조에 나타난 출처의 논리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이 갖고 있는 숨어살기의 논리적 의의를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세속은 인간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공간이다. 그 충돌을 수렴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다. 이런 관점에서 세속은 정치현실이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은 충돌과 갈등이 난무하는, 욕망의 쟁투 공간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자연이 등장한다. 자연은 충돌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흔히 상정된다. 인간이 세속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

10) 이상 인용된 강호시조에 대한 작품론적 논의는 신영명, 「16세기 강호시조의 연구」, 『사대부시가의 연구』(국학자료원, 1996) 참조.

망을 갖는다는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자연이란 역시 하나의 기획된 공간일 뿐이다. 평화와 안식이 완벽히 보장된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물론 세속 역시 충돌과 갈등으로만 점철된 곳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삼국유사 「피은」편의 연회 이야기는 세속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바로 세속일 수 있다는 변증법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세속과 자연이라는 양분법적으로 분할 기획된 공간은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변증법적 논리 과정을 통해 연회가 얻은 것은, 인간의 생활공간은 그 어느 곳이든 삶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장소라는데 있다. 분할 기획된 어떤 공간에는 삶의 즐거움만이, 다른 어떤 공간에는 괴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그곳을 모든 사람이 즐겁게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실천적 원력, 곧 원행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법화경의 요체이자 연회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

이에 반해 강호시조에 나타난 숨어사는 삶의 논리는 변증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유한다면 그것은 평면 분할적인 성격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강호시조의 담당층은 사대부다. 이 사대부의 삶에는 출과 처의 두 양식이 있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설 때 물러서는 것이 출처의 요령이다. 문제는 때를 정확히 아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때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나아가는 것도 옳고, 물러서는 것도 옳다. 출과 처의 변증법적 긴장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평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 평면 위에서의 시의적절한 선택만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그 때를 맞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출처의 갈등이 일어난다. 이 경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과 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명분에 맞는 일인가

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일이다.

강호시조는 바로 이러한 갈등 해소의 문제를 주제로 다룬다. 그런데 작가에 따라 설득의 논리에 일정한 편차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출처의 선택에 비교적 여유를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갈등 해소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가 후자보다 아무래도 온건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이황의 경우 강호자연으로의 처와 정치현실로의 출은 그 어느 것을 선택하든 무방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곧 강호자연의 선택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심성수양의 학문 연찬과 연결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권호문의 경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조금 지나칠 정도로 변명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념적 순수성을 보다 강력하게 피력하지 않을 경우, 자칫 당대 정국 상황에 대한 오판 또는 자질 부족으로 인한 정계 진출 부적합이라는 판정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피은」편의 논리는 변증법적인 반면, 강호시조의 논리는 평면 분할적이다. 「피은」편의 변증법적 논리는 삶에 대한 어떤 역설이나 반어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반면 강호시조의 출처관은 그러한 자극적인 통찰 대신, 평명하지만 조화로운 삶의 과정을 모색한다. 전자가 찰나적 깨달음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과정상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미적 범주의 측면으로 바꿔 말한다면, 「피은」편은 해학으로 강호시조는 우아로 규정할 수 있겠다.

자연과 세속, 강호자연과 정치현실과 같은 분할 기획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갈등과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욕망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변증법적 통찰이 좋은가, 아니면 조화

로운 삶의 모색이 좋은가? 이것은 물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각각의 그것이 가진 기능적 효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크게 보아 「피은」편의 불교와 강호시조의 유교 두 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욕망을 잘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 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곧 욕망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 이 둘의 공통점이다. 세속에 대한 부정의 부정을 통해 오히려 숨어사는 삶의 본질을 실현한 연회 이야기나, 나아가기와 물러서기의 갈등 조화를 통해 숨어사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강호시조, 모두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한 문학 양식이 된다.

5. 남는 문제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여전히 남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으면 아래와 같다. 먼저 논의의 요약부터 시작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유사 「피은」편의 연회 이야기 조목에는 숨어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는데 있다는 변증법적 논리가 나타난다. 문수보살이나 변재천녀로부터 연회가 배운 것은, 세속을 떠나 자연에 숨음으로써 완성하고자 한 보현관행이 오히려 세속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완성된다는 역설적 사실이다.

둘째, 강호시조에는 사대부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출처관이 나타난다. 출은 정치현실로의 나아가기를, 처는 강호자연으로의 물러서기를 각각 가리킨다. 강호시조는 이 출처의 갈등을 자연을 매개로 한 심성수양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에 따라 그 갈등을 해소하는 정

도의 차이는 조금씩의 편차를 보인다. 출처의 여유가 있을수록 갈등을 대하는 자세가 온건해진다.

셋째, 숨어살기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연회 이야기는 변증법적인 특성을 지니는 반면, 강호시조는 평면 분할적인 성격을 지닌다. 전자가 참나적 깨달음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면, 후자는 과정상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

다음 남은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숨어살기의 논리를 탐구하는 이 글의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자료의 자의적 선택에서 나온다. 삼국유사의 「피은」편과 강호시조를 비교 고찰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과제인데, 이 두 대상 사이의 비교 질량이 적절하게 배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곧 산문과 시가의 비교는 그 격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은 유교, 특히 성리학에 기반한 기존의 은거 논의를 극복하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역시 새로운 비교 자료의 선택을 통해 극복해야 문제로 여전히 남는다.

둘째, 불교적 은거관을 자료로 선택한 삼국유사의 「피은」편이 가지는 자료적 한계로 말미암아, 이 글에서 논의한 특징을 불교 일반의 숨어살기 논리로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른다는 약점을 가진다. 더구나 「피은」편 가운데서도 연회 이야기 한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은 더욱 가중된다. 앞으로 불교 쪽의 자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노장철학에 속하는 작품도 비교 대상으로 확충한다면 보다 풍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 황, 『퇴계전서』속,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71.
이현보, 『농암선생집』, 『이조명현집』 3,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73.
이민홍, 『사림과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5.
권호문, 『송암집』,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41, 경인문화사, 1995.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1, 경인문화사, 1995.
이 이,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44: 『율곡전서』 I, 경인문화사, 1995.
신영명, 『사대부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
고운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00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역주 삼국유사』 IV, 이회문화사, 2003.

〈Abstract〉

The Logic of Seclusion

Shin, Young-Myoung

This paper aims to compare meaning of the seclusion which appeared in Samgukyusa with Kangho- Sijo.

There is true meaning of seclusion so that a Bodhisattva implements a spirit. And in Samgukyusa, it has a dialectics logic.

There is true meaning of seclusion in order to solve a trouble of a participation-retirement through the moral training. And in Kangho-Sijo, it has a plane-divided logic.

Keywords : participation, retirement, seclusion, kangho-Sijo, Bodhisattva, Samgukyusa

논문투고일 : 2004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7월 7일